

무주군, 생활폐기물 불법매립 '말뽕'

광역전처리시설서 일부만 처리... 주민 혈세 낭비

무주군 적상면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최근 생활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분별한 매립을 강행하고 있어 혈세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광역전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일부만 규정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무주군청에서 눈가림식으로 매립하고 있어 무주군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면서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역전처리시설은 평일에 수거된 생활폐기물은 규정대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매립하고 있다.

공휴일에는 생활폐기물을 모아 두었다가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매립을 강행하고 있어 연 7억8천만원의 경비 절감에 따른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더욱이 광역전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 경비 절감을 위해 환경측에서 반년 단위로 폐기물 매립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청에 위탁 운영소장 A씨는 "무주군청에

서 생활폐기물을 광역전처리시설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매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무주군과 진안군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적상면에 광역전처리시설 건설에 130여억원을 투입, 무주군 25%, 진안군 25%, 국비 50%로 광역 전처리시설을 2009년 5월 착공해 2014년 2월에 완공해 사용하고 있다.

이후 (모) 회사에서 폐기물 광역전처리시설을 위탁수행하며, 책임기동일 1년에 220일기간으로 1일 45톤(10시간)을 규정대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고형연료화를 생산해 (모)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무주군과 진안군은 2016년 1년 기준 위탁회사에 위탁비 14억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운영소장 외 13명 인건비로 7억8000만원을 지급,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쓰여 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무주군과 진안군에서 광역전처리시설 위탁비로 엄청난 돈을 지급하고



무주군 적상면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생활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매립을 강행하고 있다.

있지만 생활폐기물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주민 박 모씨는 "청정 무주에서 생활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매립을 한다면 그에 따른 처리비용

이 절감돼 위탁사만 배를 불리며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환경측을 개최하는 무주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 않고 매립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글로벌 명품축제로

시, 한국관광공사와 축제 참여 해외관광객 대거 유치 추진

전주시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주비빔밥축제를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글로벌 명품축제로 만들기 시작했다.

시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 브랜드인 '전주비빔밥'을 테마로 매년 열리는 전주비빔밥축제를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대거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해외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한외국인SNS기자단과 한국관광공사 직원 등 50여명은 지난 14일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해 비빔밥 퍼포먼스 체험, 태조어전공연인레 관람, 전주한옥마을 및 남부시장 명소 탐사 등 실제 전주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기자단은 이번에 체험한 전주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출신지역에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채널과 한국관광공사 공식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체험 후기와 함께 관광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이번 전주팸투어에서 비빔밥 퍼포먼스를 체험하고 전주비빔밥과 비빔빵 등 비빔밥을 응용한 다양한 음식을 시식한 후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되는 '2017 전주비빔밥축제'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비빔밥축제와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시 문화관광 자원의 적극적 해외 홍보를 위해 외국인 관광 관련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홍보방안, 관광객 확대를 위한 인프라, 서비스 개선방안 등 포괄적 해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을 전수 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또 전주시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8개 해외 홈페이지와 3개 SNS채널, 160여명의 주한외국인SNS기자단을 활용한 홍보, 음식메뉴 번역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어메뉴 판제작 등 서비스개선, 비빔밥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결합한 상품개발 등도 제안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외국인SNS기자단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비빔밥축제를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 전열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매력을 널리 알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관광경제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11회째를 맞는 전주비빔밥축제는 비빔밥을 주제로 한 음식문화축제,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한국 전통의 맛과 멋, 흥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로 펼쳐질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탈루·누락세원 38억원 추징

세원발굴 조사단 운영... 비과세·감면 16억, 대형건축물 취득법인 5억

전주시가 세금탈루 행위를 뿌리뽑고 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운영한 세원발굴 조사단이 비과세·감면 16억 및 대형건축물 취득법인 5억 등 총 38억원의 탈루·누락세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시가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항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다.

시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취득신고 당시 법인장부상 기재된 취득비용을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감면을 받은 후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및 고유목적 미사용 등으로 탈루·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는 탈루·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4분기에는 원룸 건축자 미등기 전매 조사와 지복변경·차량 구조변경후 미신고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탈루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 분야에 걸쳐 매년 조사하겠다"라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시 결산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비용에 대해 수 정신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감면 받은 후 감면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을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임실 개인 찜질방서 2명 직식사

13일 오전 8시께 임실군 청용면의 한 개인주택 찜질방에서 친척관계인 A(81,여)씨와 B(69,여)씨가 사망했다.

이들은 전날 지은 황토를 이용해 만든 찜질방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을 찾아가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독을 피웠던 흔적이 발견되는 등 질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완산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운영

완산경찰서는 13일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해 주민대상으로 범죄 예방교육 및 경찰업무체계를 통해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고자 제10기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한다

이날 경찰서 5층 강당에서 개최된 입학식에는 지난 9월 11일부터 3주간 모집한 각계각층의 시민 22명이 입학해 4주간 생활방범요령, 교통사고처리절차, 고소고발사건, CSI견학 등 경찰업무에 체험하게 된다. /이상민 기자

'전주관광 MICE 포럼' 개최

전국 관·산·학 관광학자들이 참여하는 MICE 관광 포럼이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관광 MICE 포럼'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김승수 시장, 김남조 한국관광협회장, 배영찬 한국여행업협회 경영지원국장, 한국관광공사 정재선 전북지사장 등 관광학계와 관광기관, MICE 산업 관계자, 관광업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속적인 전주관광 활성화와 MICE산업의 기반확립을 위해 전주시와 한국관광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전라북도관광협회가 공동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주관광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제적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MICE 산업 육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주관광 MICE 포럼은 1부에서 관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고, 2부에서

는 전주지역 관광활성화 방안과 MICE 육성전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전주시, 한국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가 전주관광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관광과 MICE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45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 관광학회인 한국관광학회와 함께 국내외 여행사, 외국 관광청 등 국내외 다수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역유치를 도모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관광 이미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관광에 대한 국내외 위상과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심이 하나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관광포럼을 통해 전주시 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잔소리 때문에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준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0시10분께 부안군 자택에서 아버지 B(73)씨에게 집기 등을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가 평소 A씨에게 심하게 잔소리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원했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아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